

2026 지방선거 특집 분석보고서

469만 명이 돌아왔다

- 투표율 50.9%에서 61.0%로, 누가 다시 투표장에 나왔나

이 보고서의 모든 분석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한다.

“전국 투표율이 50.9%에서 61.0%로 10.1%p나 뛰어오른 이유는 무엇인가?”

이는 단순히 “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다”는 식의 표면적 답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.

지방선거에서 10%p 상승은 역대 최대 폭이며, 같은 기간 광역단체장 의석 분포가 5:12에서 12:4로 정확히 역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. 투표율 상승과 의석 변동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은, **잠들어 있던 유권자들이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깨어났음**을 의미한다.

● 분석 프레임: 효능감 × 위기감의 2 × 2 행렬

보고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분석 틀을 채택한다.

구분	민주 성향 유권자	보수 성향 유권자
동원 동기	효능감(efficacy) “내가 투표하면 바뀐다”	위기감(threat) “방어하지 않으면 진다”
시기적 표출	사전투표 비중 ↑	본투표 당일 결집 ↑
2022 대비 변화	비동원 → 재동원(복귀)	동원 → 재동원(복귀)
정치적 의미	조건부 위임	조건부 복원

이 행렬의 핵심은 두 진영 모두 “복귀”했지만 복귀의 정서적 동기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이다. 민주 진영은 2025년 대선 승리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효능감을 회복했고, 보수 진영은 야권의 수세적 위치와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방어 심리로 결집했다.

● 사라졌던 469만 표의 귀환

구분	2022(8회)	2026(9회)	증감
전국 투표율	50.9%	61.0%	+10.1%p
사전투표율	20.6%	23.51%	+2.91%p
총 투표자 수	22,564,394명	27,253,457명	+4,689,063명

4년 전보다 투표자가 약 469만 명이 늘었다. 이번 선거의 모든 분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. 469만 명은 어디서 왔는가, 왜 왔는가, 그들은 다음 선거에도 올 것인가.

● 대구와 광주가 동시에 결집했다

시도	2022 대비	정치적 색채
대구	+21.0%p	보수 결집(위기감)
광주	+16.6%p	민주 복귀(효능감)
전북	+14.1%p	민주 복귀(효능감)
부산	+13.0%p	양방향 결집
울산	+11.8%p	양방향 결집
세종	+11.3%p	민주 우위
경남	+11.2%p	양방향 결집
서울	+10.4%p	자산·세대 분화

투표율 상승폭 상위 두 지역이 대구(+21.0%p)와 광주(+16.6%p)였다.

- 대구는 보수의 본진이지만 2022년에는 결과가 너무 명백해 투표 동기가 낮았다. 그러나 2026년, 야권 위기 상황에서 보수의 **방어적 결집**이 +21%p 증가로 나타났다. 여기엔 그간 투표하지 않던 민주당 성향 지지층의 효능감 확산에 따른 대거 동원이 동시에 작용했다. 비례에서 민주가 33.31%, 국힘이 60.69%로 격차가 27.38%p였음을 감안하면,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비례 정당 지지율 대비 11.74%p나 더 받았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요소이다. **대구에서 광역 단체장 후보 단위에서 민주당의 인물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동한 것이다.**
- 광주는 2022년 비동원 상태에 있던 민주당 성향 유권자가 2025년 대선 이후 효능감을 회복하며 **재동원**되었다.

즉, 투표율 상승은 “중도층의 새로운 참여”가 아니라, “기존 진영의 비동원자 원대 복귀”가 주력이었다.

이번 선거는 투표연합이 새롭게 형성되거나 이동한 선거라기보다는, **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일어난 선거**이다.

공공정책·정치컨설팅 그룹 원지코리아컨설팅

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/ 가장 정확한 조사
지자체,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, 빅데이터 분석, 여론조사, 선거컨설팅
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, 정우빌딩 9층(여의도동 13-25)